

법회안내

대각사(02)765-0972
합참단법회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전북불교교회(0662)77-3497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광주 지비정사(032)234-0879
신중기도법회
매월 1-3일
(음) 오전 10시
...
광주사(02)979-5183
경가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전북불교교회(0662)77-3497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광주 지비정사(032)234-0879
신중기도법회
매월 1-3일
(음) 오전 10시
...
광주사(02)979-5183
경가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남북한은 5월26일 베이징에서 7월말까지 육수수 기준 5만여의 구호물자를 쌍방이 인도·인수하기로 합의하는 등 대북 직접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오랜만에 남북한간의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번 쌀 30만 톤을 북한에 장수한 남파사건이 일어났듯이 평화통일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유비무환의 안보태세를 늦추서는 안될 것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정한 '호국'의 의미를 경전에서 알아본다.
<편집자 주>
만일 어떤 왕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왕의 국토안에 많은 안락이 있게 되기를 원하거나 국토 안에 사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다 패락을 성취하게 하고

이렇게 들었다

원하는 바를 만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 밖의 모든 적들을 항복시켜 온 국토를 잘 보존하고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원하거나 중생들의 공포를 없애주어야 한다.
<금광명경>
재물을 널리 베풀어 주는 덕과 신명(身命)을 버리면서도 헛되지 않고, 대용맹을 갖추어 원적(怨敵)을 제압할 수 있는 3덕만 갖추어도 처국할 수 있다. <화엄경>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외적이 쳐들어올 때 왕은 <인왕경>을 읽고 외우라. 100개의 불상을 세워놓고 100명의 비구를 청

한국 탐욕 끊고 정법대로 살면...

해다가 <인왕경>을 외우게 해야 한다. 그리고 100개의 등불을 켜고 갖가지 향을 태우고 꽃을 뿌려 공양하면서 하루에 두 번 경을 읽어야 한다.
<인왕호국반야비리밀다경>
이 성(城)이 파괴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세가지 우환이 있으니 큰 물, 큰 불, 나라 안의 사람과 나라 밖의 사람이 서로 음모할 때이다.
<유형경>
나라를 세우는 기초로 다섯가지 공포(恐怖)를 없애는 방법이 있다. 임금이 순박해서 조심성 있고 과세기준이 평등해

사 도적 침략의 공포가 있으면 국민들은 불안해 한다. <화엄경>
3종업륜(三種種輪)이란 군인들에게 전투의 기능을 잘 가르쳐 외침과 내란을 항복받아 인민들을 포육(育)하는 것이고, 집짓고 농사짓는 일을 국민들에게 잘 가르쳐 주식을(住食)을 충족케 하는 것이며, 종업과 상업은 인민들에게 잘 가르쳐 여러가지 도구와 재물을 뜻대로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대승대집지장심론경>
5종대사(五種大事)는 만민을 영도함에 소극적이어서는 안되고 장군과 사병을 잘 양육하여 지위를 주고, 분업을 잘 맡아 복역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출신들의 간섭을 잘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손상되지 않게 하고, 탐욕을 절제하여 방일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법구사성경>

어린이지도자 참선연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맹회(회장 철오스님)는 14, 15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제23차 전국 불교어린이 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1박2일 일정의 이번 행사에는 대효(원명선원 회주) 철오스님의 참선교육법과 부처님 가르침을 어린이에게 전달하는 법 강의, 불교 레크레이션지도 등 여름불교학교에 실제로 활용되는 교육과 수행에 중점을 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군중법과 도서벽지 지도자는 동참금의 50%를 지원해준다.
(051)808-4569



전국불교어린이지도자 7백여명이 참여한 연수회에서 중령스님(조계종 중앙총회 교육문화위원장)이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제20차 연수회.

'불교문화배움터' 개설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은 사찰문화와 불교문화의 진수를 공부할 수 있는 '불교문화의 배움터' 강좌를 개설했다.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에 열리게 될 '불교문화의 배움터 강좌'는 우리 문화속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불교문화를 통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6월5일 오후 7시 대학문화원 세미나실에서 열리게 될 첫강의에는 '한국의 불화'를 주제로 박도화씨(동국대학교 학교 박물관 연구원)가 강의한다. 참가회비는 매월 1만원이다.
(02)587-6613

중 장강 삼협 성지순례

불교방송은 6월24일 동국대 역경원 원장 월운스님(봉선사 회주)과 함께 하는 중국 장강 삼협 성지순례를 떠난다. 6박7일 일정으로 떠나는 이번 성지순례는 상해 임시정부청사를 거쳐 유람선을 타고 장강 귀신성 백제성 형주박물관 미수보탑 황학루 귀원사 육불사 등을 둘러보게 된다. 참가비는 총 1백30만6천원이며 불교

지리산 일대 생명기행

'지리산 맑은 물에 노니는 작은 생명들'이란 주제로 떠나는 제75차 우리문화기행, 부산불교교육원(지도법사 성재도)은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고양하고, 부처님의 진리와 늘 함께 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답사를 떠난다.
(02)726-5702

법조계, 佛供길 숨진 판사가족 돕기

법조계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5월11일 불공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김영진 정채종 판사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이 펼쳐져 잔잔한 화제가 되고있다.
광주교법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 모금운동은 정채종 직후 동료들의 발의로 시작돼 다른지역까지 전파돼 법조계가 호응하게 된 것.
김영진 정채종판사는 가족들과 승용차를 타고 경북 봉화에 있는 한

목탁·염불하는 법 강의

승우스님(금오선원주지)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불가침구학회 법당에서 목탁치는법, 바르게염불하는법, 불교예식에 필요한 기초지식 등을 강의한다. 2시간 동안 진행되며 목탁을 바르게 잡고 치는법, 구품수행염불법, 예불과 불교식 제례에 필요한 기본지식에 대해 가르칠 예정. 일반 신도들의 가정법회 개최나 혼자서 정진할 때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02)591-6464.

나의 수행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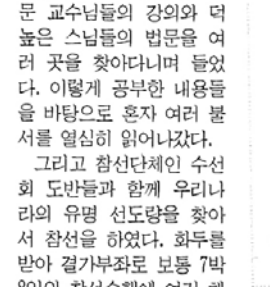


박중현

반세기의 방황을 청산하고 불교수행의 바른 길을 찾았다. 어머니께서 불공을 드려서 나를 낳으셨으니 나는 태중 불자인 셈이다. 그러나 나는 50대 중반까지 바른 불법을 만나지 못하다가 1989년 여름방학 때 한국불교연구원 경주에서 실시한 초·중·고교교사(교장, 교감 포함)들을 위한 불교강좌에서 내 인생행로에 큰 전기를 맞게 되었다.
지난날의 그 많은 세월, 불교는 기복적인 면만 나에게 다가왔었지 참선, 염불, 강경 등을 통한 불교수행은 나와 인연이 닿지 않았다. 자신의 불성을 찾아 깨달음에 이르는 원대한 목표가 불교에 있음을 몰랐었다. 경주에서 이기영원장님과 정병조교수의 조리정원한 불교강좌 강의를 들었으며 참선도 했다. 또 불국사와 석굴암에서의 조석에 불은 새로운 감명을 주었다. 그 뒤에도 불교전문 교수님들의 강의와 덕 높은 스님들의 법문을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들었다.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혼자 여러 분서를 열심히 읽어나갔다.
그리고 참선단체인 수선회 도반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유병 선도장을 찾아서 참선을 하였다. 화두를 받아 결과부자로 보통 7박 8일의 참선수행에 여러 해 동참하였고, 지금도 집에서 매일 새벽에 30분씩 참선을 하고 있다. 또 관악산 연주암에서 실시하는 '3천배 철야정진'에 나이드 있고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엄장 소멸을 위해 밤새워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에 도전하여 어렵게라도 계속 뜻을 이루고있다.
그때도 소독은 전무하다. 두터운 철벽을 작은 바늘 하나로 뚫는 격이라 할까?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났다. 그러나 워낙 늦은 나이에 발심하였다는 자책감과 함께 나는 깨달음을 향해 수행하는 보살임을 자각했다. 보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과 함께 자기의 쌓은 바선

"어떻게 회향할까" 생활 화두

학생교회 보람... '隨處作主' 수행 나침반



근을 나에게 물리는 것, 즉 회향'이 요청된다. 나는 어디에 회향할 것인가? 나의 앞에는 항상 가르침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제자들이 있지 않은가? 이들을 올바른 인간으로 길러야 한다. 그래서 전국교사불자회는 더욱 활성화 되어야한다. 나 자신의 수행을 계속하면서 나의 제자들과 교사불자도반들을 위해 더욱 노력해 아겠다고 다짐하였다.
학생들에게 불교생활, 불교유화, 불교전래동화나 부처님의 전생담 또는 불교경전의 내용을 쉽게 풀어 이야기 해주면 학생들은 재미있어 하면서 감화를 받는다. 이를 위해서 나는 교사불자회원들과 함께 불교전생담에 가서 많은 우수 불서를 찾아내어 '청소년 불교도서 목록'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보내었다.
또 참선도 할 수 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 허리를 곧게 펴서, 눈을 반쯤 뜨고 어깨 아랫쪽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으로 만든 화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하며 매일 10여분씩 하겠더니 몇 달 후부터는 학급의 분위기가 더욱 안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에서는 방석을 깔고 좌선하도록 지도하였더니 학년말까지 여러 학생들이 꾸준히 계속하였다고 한다.
교사불자회에서는 회원들의 수행담, 학생 불교지도 우수사례, 경전 연구 등 다양한 내용을 실은 문집(빛을 찾아서)을 두 번 냈고, '학교에서의 불교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주에서 세미나를 열어 전국의 회원들이 활발한 토론을 하였다.
'어느 곳에서든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된다면, 그 서 있는 곳이 다 진실하고, 영원한 곳, 가치가 있는 곳이다(隨處作主 立處皆眞)'라고 한 <임제록(臨濟錄)>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수행할 것이다.
<서원신화초등학교 교사·전국교사불자회장>

創 宗 公 告
1. 本宗의 宗名은 大韓佛敎 臨濟宗이라 한다.
2. 本宗의 敎主는 釋迦牟尼佛로 하고 宗祖는 臨濟義賢大祖師로 하며 太古普愚國師의 法脈을 繼繼相資한다.
3. 本宗의 所依經典은 金剛經과 華嚴經, 傳燈錄, 祖師語錄으로 한다.
4. 本宗의 我國傳來는 小獸林王 二年으로 起算한다.
5. 本宗의 淵源은 中華民國 白聖大長老의 뜻에 따라 弟資 先白岡大禪師가 設立한 臨濟宗을 繼承하여 賢弟이신 釋賢巖 大宗師를 創造主로 十方三世 諸菩薩이 證明하시는데 十方世界에 大韓佛敎 臨濟宗創宗을 宣布합니다.
佛紀 2541年 5月 28日
大韓佛敎 臨濟宗
創造主 宗正: 釋賢巖 大宗師
長老 院長: 釋慧巖 大宗師
總務 院長: 釋香巖 大禪師
宗會 議長: 釋竹巖 大禪師
司正 院長: 釋峰巖 大禪師
教育 院長: 釋正巖 大禪師
布教 院長: 釋圓巖 大禪師
忠南 公州郡 鷄龍面 中壯里 山 108 番地
臨濟宗護國禪寺

중국명문 한의대 박사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연수 대학: 국립 남경중의약대학(남경한의대) 중국 남경 TEL: 660-7129
대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침·기공에 관심 있으신분
기간: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당노병, 중풍, 간염, 비만, 좌골신경통 등의 침치료, 기공등
연수 후: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고급과정 수료증 수여(高級課程 進修 證明書)
인원: 10명 선착순
출발일: 1997년 6월 27일
문의처: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화: (02)511/2026-8

1997학년도 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불교대학원(아간) ☎ 260-3097, 3098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불교학과: 불교학, 신학 나. 불교사학과: 불교사, 예술사
다.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모교학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7. 6. 9(월) ~ 6. 20(금) 09:00 ~ 17:00(토, 일요일은 제외)
4. 전형일시 및 장소: 1997. 6. 26(목) 14:00 불교대학원 교학부에 게시함
5. 전형방법
가. 석사학위과정
1) 일반전형: 필기시험(영어-전공) 및 면접
2) 특별전형: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사회지도급 인사물 추천함
나. 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6. 특전: 조교생 장학금 수여 및 공무원, 교직원, 군인, 불교연인원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
불교지도자과정
가. 지원자격: 조계종의 대외 법계 불승 승려, 각 종단의 건부, 각 신원단체의 건부 및 대표, 신심이 분명한 자
나. 원서교부 및 접수: 석사과정과 동일
다. 전형일시 및 방법: 1997. 6. 27(금) 14:00 서류전형 및 면접
문화예술대학원(아간) ☎ 260-3606, 3607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학 과 목 전 공
문예창작학과 문예창작
연극영화학과 공연예술, 영상예술
불교예술문화학과 불교미술, 한국음악, 문화재
공연예술학과 공연예술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7.6.2(월) ~ 6.13(금) 10:00 ~ 17:00(토, 일요일은 원서만 접수)
4. 전형일시 및 장소: 1997. 6. 21(토) 10:00 본대학원
5. 전형방법
가. 석사과정: 필기시험(논술) 및 면접 나. 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전: 각종 장학금 지급제도 있으며 해외지파대학 등의 연수에 참가할 기회 있음
문화예술지도자과정
1. 모집분야: 문예창작, 공연예술, 영상예술, 불교미술, 한국음악, 문화재, 환경예술
2. 지원자격
장부 각 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전사 주지급 스님, 언론·문화·예술 및 연예인 과 유관기관의 임직원, 환경·조경 등의 유관기관직원, 사회지도급 인사와 기업체 임직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 연구과정과 동일
4. 특전: 석사과정과 동일
*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습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의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재능을 증진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 이니언으로 한다.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